

BNK 경제인사이드

BNK 금융경영연구소

NO. 2015-10

(2015년 10월)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정성국 수석연구위원 (skjung@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원 (kmj9612@bnkfg.com)

창업이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가 창업생태계에 주목하고 있다. 창업생태계는 기업, 정책, 인프라, 금융, 사회문화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환경이다.

동남권은 창업활동이 저조하고 혁신형 기업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창업 인프라 미흡으로 혁신형 기업의 자생적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벤처 캐피탈은 높은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는데 반해 동남권은 자본집약도가 높은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투자자의 시선에서도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동남권은 상생 협력하는 개방형 창업생태계로 성장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내 국한된 성장모델이 아닌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발전모델을 수립해 창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 기업, 지자체, 투자자 모두가 인재양성기반, 확장된 창업 기회, 공유네트워크, 건전한 창업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전 세계가 창업생태계에 주목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경제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낮은 고용률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혁신형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양호한 점¹⁾에 주목하여 이들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은 「창의적 아이디어 → 창업 및 혁신 → 산업성장 → 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주체인 창업가(기업), 정부의 창업제도(정책), 창업지원시설(인프라), 자금을 공급하는 창업투자(금융), 창업에 대한 사회적문화(인식)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된다. 창업생태계의 조성 목적은 무엇보다도 창업가들이 실패와 재도전과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국가별 혁신형 창업



Start-up America

-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 U-턴 기업, 첨단산업 금융지원 강화
- 통상강화를 위한 'ITEC' 설립
* 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신성장전략

- 전략적 Innovation + 혁신적 R&D 추진 프로그램 창설
- 사업재편·첨단설비 도입 혜택 확대
- FTA : 19%('14) → 70%('18)



中國夢

- 7대 신흥산업(新ICT, 바이오 등) 육성
- 세계의 공장 → 거대 내수시장 → 창조의 중국
- '자주혁신 시범단지' 활성화
* 중관촌, 상해 장강 지구 등



Industry 4.0

- '첨단기술전략 2020'
- '디지털 독일 2015'
-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히든챔피언)

자료 : 중소기업청 2015년 업무 보고

1) OECD국가에서 신생 중소·벤처기업의 총 고용비중은 12.5%, 신규고용 창출 비중은 33.4%로 나타남
(산업은행, '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제2벤처붐의 활용방안' 재인용)

우리 정부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 방안(2013.5), 벤처·창업부 확산 방안(2015.7) 등을 발표하며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창업 비율²⁾이 36.2%(2013년 기준)를 기록해 일본(24.3%), 미국(21.2%), 독일(18.0%), 영국(17.0%) 등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인 Compass가 발표한 2015년 세계 창업생태계 순위에 따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상위 10개 도시에 뉴욕, LA, 보스턴 등 미국내 도시가 6곳이 포함됐다.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가 10위에 올라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아시아의 창업생태계 수준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에는 풍부한 자본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인재와 벤처기업이 모여 혁신활동이 활발한 창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전자, 생명공학 분야에 1만여개의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연평균 신규창업 회사수는 3~4천개에 달한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은 평균 2.5회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널리 퍼져있다.

세계 창업생태계 순위

도시명	순위	성과	자금지원	시장진입	역량	창업경험
Silicon Valley	1	1	1	4	1	1
New York City	2	2	2	1	9	4
Los Angeles	3	4	4	2	10	5
Boston	4	3	3	7	12	7
Tel Aviv	5	6	5	13	3	6
London	6	5	10	3	7	13
Chicago	7	8	12	5	11	14
Seattle	8	12	11	12	4	3
Berlin	9	7	8	19	8	8
Singapore	10	11	9	9	20	9

자료 : Compass (The 2015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 is Live)

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과제 재인용)

혁신형 창업은 부산이 가장 활발

동남권의 창업기업³⁾은 253,433개로 전국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사업체수가 전국의 16.3%인 점을 감안할 때 동남권의 창업기업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사업체수 대비 창업기업 비중을 보면 경남이 47.6%로 동남권에서 가장 높고 울산 및 부산은 전국 평균 44.6%를 하회하는 42.2%, 37.7%로 창업의 열기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한편 동남권 창업기업 중에서 창업생태계의 핵심이 되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혁신형 기업⁴⁾ 비중은 0.5%로 전국 평균 0.7%를 하회 하였고 특히 수도권 0.9%에 대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혁신형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 경남이 각각 0.2%, 0.4%로 동남권 평균 0.5%보다 낮았으나 부산은 0.6%로 가장 높아 부족한 창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혁신성 수준은 우수하였다.

동남권 창업기업 현황

(개, %)

구 분	전 사업체수 (A)	창업기업수 (B)	혁신형기업수 (C)	비중	
				(B/A)	(C/B)
전국	3,676,876	1,638,739	11,471	44.6	0.7
수도권	1,736,300 (47.2)	800,399 (48.8)	7,500 (65.4)	46.1	0.9
동남권	597,889 (16.3)	253,433 (15.5)	1,154 (10.1)	42.4	0.5
(부산)	271,983 (7.4)	102,530 (6.3)	615 (5.4)	37.7	0.6
(울산)	76,993 (2.1)	32,497 (2.0)	65 (0.6)	42.2	0.2
(경남)	248,913 (6.8)	118,406 (7.2)	474 (4.1)	47.6	0.4

주 : 2013년 기준, ()내는 전국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3)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정의된다. 최근 통계청은 창업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창업기업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승인일자 2013.11월)

4) 벤처기업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고위험·고성과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 이노비즈기업은 기술혁신활동 등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경영혁신기업은 기술혁신·사업화·경영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전국의 창업보육센터에는 2,003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4.7% 입주한 반면 동남권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대학연구기관의 경우에도 2,075개의 기업 중 수도권 입주 비중은 53.6%이나 동남권 입주 비중은 7.8%로 수도권 대비 크게 낮았다. 동남권은 산업단지 및 일반주거지역의 입주기업 비중이 높아 전통적인 제조업 및 생계형 창업기업의 비중은 높은 반면 혁신형 창업기업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기업 입지 현황

(개, %)

구 분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창업보육센터	2,003	64.7	6.5	6.5	0.0	0.0
대학연구기관	2,075	53.6	7.8	4.8	0.0	3.0
산업단지	48,052	51.7	17.7	7.7	1.2	8.8
아파트형공장	8,388	90.0	8.9	0.0	0.0	4.9
일반상업지역	1,058,371	48.5	14.3	5.4	2.1	6.8
일반주거지역	391,404	51.5	17.5	8.1	2.1	7.3
기 타	128,445	39.5	19.2	7.6	1.0	10.6

주 : 2013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이와같이 동남권의 창업활동이 양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창업의 질에서도 혁신형 창업활동이 부진한 상황이다. 혁신형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하여 생존율이 높고⁵⁾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져야 된다.

5)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혁신형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기업 생존율

(%)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혁신형 창업기업	91.1	78.1	67.0	57.8	52.7
일반 창업기업	61.3	48.4	40.5	35.1	29.6

주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기업의 이력·성과 조사결과(2014)

창업 인프라 미흡하여 창업기업 육성에 한계

창업기업 육성 사업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초기 창업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낮은 비용의 사업장·사무기기 임대, 시제품 시현, 제조설비 대여, 세무회계·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하여 혁신형 기업의 가치제고 및 생존을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⁶⁾는 대학, 연구소 등이 소재하여 향후 벤처기업의 집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기반시설 구축, 세제혜택 및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전국에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도권 8개소, 동남권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촉진지구내 입주한 벤처기업수 비교시 수도권은 2,095개이나 동남권은 202개에 불과하다. 동남권 내에서는 부산에 79.2%인 160개 업체가 입주하여 경남 및 울산에 비하여 집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

구분	지구명	주력업종	벤처 기업수	지정면적
서울	• 성동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쇄, 금속, 전기, 전자	209	3.00km ²
	• 영등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정보처리, 영상음향, 전기	133	2.60km ²
	• 홍릉·월곡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바이오, 환경, 정보통신	7	0.75km ²
경기	• 부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부품소재, 금형조명	241	0.73km ²
	• 성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IT융합, 게임콘텐츠, 바이오	711	4.47km ²
	•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금속	131	0.51km ²
	• 안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학	127	2.83km ²
	• 안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IT, SW	536	3.26km ²
부산	• 대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정보·영상처리 및 컴퓨터	130	0.62km ²
	• 하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계, 금속	30	2.22km ²
울산	• 울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IT, SW, 제조	19	1.14km ²
경남	• 창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전자정보, IT, SW, 로봇	23	0.79km ²

자료 : 중소기업청(2015년 10월 기준)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촉진지구를 지정

동남권의 창업공간 지원시설(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부산 26개소, 경남 17개소, 울산 2개소로 나타났다. 동남권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선도대학의 전국 비중은 12.9%이며 실제 입주한 기업도 수도권과 비교시 저조한 수준이다. 가장 실질적인 벤처활동이 일어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은 5개소(부산 4개, 울산 1개)에 불과하여 수도권의 66개소에 비해 크게 낮은 모습이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정보 공유가 가능한 물리적 공간 등의 인큐베이터가 필요하지만 동남권은 이러한 시설의 부족으로 집적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공간 지원시설 현황

(개소)

구 분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창업보육센터	282	95	37	19	1	17
창업선도대학	28	9	3	3	—	—
벤처기업집적시설	100	66	5	4	1	—
소 계	410	170	45	26	2	17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등을 사전 점검하여 창업 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동남권의 경우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업아카데미,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창업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시설은 7개소(부산 3개, 울산 3개, 경남 1개)에 불과하다. 예비창업자 양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창업교육 지원프로그램 현황

(개소)

구 분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창업아카데미	35	17	2	1	1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9	4	3	1	1	1
창업대학원	10	4	2	1	1	—
대학 기업가센터	3	2	—	—	—	—
소 계	57	27	7	3	3	1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해야

창업기업은 주로 은행, 벤처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으로 부터 자금을 공급받는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중 은행 대출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창업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모태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조성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확대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초기 단계 보다는 중·후기 기업에 집중하는 리스크 회피적 투자성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자문 등으로 기업 가치 제고후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2015년 상반기 기준 국내 엔젤투자자⁷⁾ 등록수는 8,446명이나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엔젤투자자는 6,661명으로 전체의 78.5%에 이르고 있으나 동남권의 엔젤투자자는 557명으로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별 엔젤투자자 현황

(명, %)

구 분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회원수	8,446	6,661	557	302	50	205
구성비	100.0	78.5	6.6	3.6	0.6	2.4

자료 : 엔젤투자지원센터

7) 엔젤투자자는 개별엔젤투자자(창업초기중소기업에 투자와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투자자로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자)와 전문엔젤투자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유효기간 2년 이내인 개인)로 구분되며 2015년 상반기 기준 전문엔젤투자자로 26명이 등록되어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 현황을 보면 수도권 대비 동남권의 벤처 기반 취약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4년말 기준 투자 잔액 500억원 이상의 창업투자회사 31개사(투자 잔액 기준 전체의 70%)의 지역별 투자 규모를 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전체 자금의 75.2%인 8,636억원이 투자되었으나 동남권은 200억원이 투자되어 전체 비중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벤처캐피탈 지역별 투자 현황

(억원)

구 분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투자 잔액	11,487	8,636	200	167	10	23
투자 비중	100.0%	75.2%	1.7%	1.5%	0.1%	0.2%

주 : 2014년 기준 투자잔액 상위 31개사의 신규 투자실적

자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DIVA)

113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 동남권에 본사를 둔 회사는 5개사⁸⁾ (2015년 9월말 기준)로 모두 부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립 10년 미만의 회사이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투자활동이 부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이다.

동남권 지역의 투자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주력산업의 경기 불황으로 업종별 포트폴리오 분산에 어려움이 있어 수익률 확보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주요 투자대상은 ICT, 바이오, 콘텐츠 관련업종인데 반해 동남권 주력산업은 기계·조선 등 제조업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업력이 길고 자본집약적 매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IPO 및 M&A를 통해 높은 레버리지효과를 추구하는 창업투자 특성으로 인해 동남권은 투자 매력도가 낮아 투자처 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동남권 소재 창업투자회사로 HQ인베스트먼트(2007.9.20 설립), MG인베스트먼트(2008.5.28 설립), BK인베스트먼트(2009.4.30. 설립), SB인베스트먼트(2014.11.10 설립), 시너지벤처투자(2015.1.20 설립) 5개사가 운영 중에 있다.

개방형 창업생태계로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

최근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사업에 힘입어 동남권도 창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인적, 물적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동남권의 창업 활동이 탄력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창업지원시설도 차별화되는 장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부터 우수한 창업인재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력 산업의 특징이 벤처캐피탈의 투자목적과 부합하지 못하면서 투자자의 시선에서도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이에따라 동남권의 창업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생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 생태계의 조성이 요구된다. 동남권은 창업 인프라 미흡으로 혁신형 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더딘 상황이다. 각 지역별로 분산된 창업기업 및 창업지원시설의 집적도를 높여 혁신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내 국한된 성장모델이 아닌 부산, 울산, 경남의 창업인프라가 하나의 발전모델을 수립하여 상생 협력하는 개방형 발전형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개방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 혁신형 창업기업은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이 가능한 기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의 양성과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남권에도 더욱 심화된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대학원과 연구원 등을 유치하여 지역내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산업의 혁신역량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확장된 창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창업친화적 정책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도 동남권에서 창업이 용이하도록 하여 해외 우수인재들의 유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으로 동남권의 창업가들이 해외인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까지 확장된 창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이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공유형 창업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기업과 혁신형 창업기업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네트워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울·경 기업의 창업역량과 인프라를 공유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동남권의 주력산업 기업이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혁신형 기업과 함께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실패는 사회적 낙오자가 된다는 인식을 전환하여 ‘건전한 창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창업가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 및 기업가 정신 고취로 실패에 대한 관대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창업 엑셀러레이터는 실패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투자하며 오히려 실패경험을 인정해주고 있다. 향후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로 일반시민들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형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업, 지자체, 투자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Beyond No.1 in Korea



2015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부산은행이 사회공헌 최우수 기업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을 적극 실천하여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nkfg.com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